

# 越 총리 만난 조현준 “베트남은 글로벌 전초기지”

(베트남)

(효성그룹 회장)



폭 총리와 사업협력 강화 등 협의  
호치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  
중부에 추가 생산법인 설립 검토



지난 8일 효성 조현준 회장(왼쪽)이 베트남 하노이 총리 공관에서 응우웬 쑤언 폭 총리를 만나 사업 확대 등에 긴밀히 협의하고 베트남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뜻을 밝혔다. /효성그룹

조현준 효성 회장이 베트남을 글로벌 복합 생산기지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11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웬 쑤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6년 폭 총리를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전 세계 7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효성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 남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최대 투자 회사로, 효성 베트남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라고 소개

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1위의 스파넥스와 타이어코드뿐만 아니라 화학 중공업 부문에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효성과 베트남도 긴밀히 협력해서 효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베트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로 중국 공장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며 2000년대 중반부

터 베트남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지난 2007년부터 호치민시 인근의 연좌공단의 경우 베트남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연좌공단 내 한국 기업으로는 최대 투자 기업이다. 축구장 90개 이상 크기인 약 120만㎡ 규모의 부지에 스파넥스,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전동기 등 핵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채용인 규모도 7000명을 넘는다.

효성은 지난해부터는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총 13억 달러를 투자해 폴리프로필렌 공장과 이를 위한 탈수소화 공정(DH) 시설, LPG 가스 저장탱크 건립 등에 대한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 광남성에 추가 생산법인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효성 베트남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전 사업부문의 제품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폭 총리와 베트남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회장은 송전과 건설 부문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효성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서도 성공을 자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이 초고압 변압기 부문에서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폭 총리는 효성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효성이 베트남 국영 변압기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회장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포

럼을 열 것을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ESS, ATM, 전자결제, 핀테크 등 IT 사업 추진도 논의했다.

조 회장은 기존 제조 공정에 빅데이터와 같은 IT 기술을 결합하는 등 제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베트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IT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팩토리·신재생에너지·금융자동화기기·전자결제 사업 등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효성의 사업 확대 기회도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핵심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현장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베트남 외에는 지난해 7월에는 중국 허베이성 취저우시의 당서기를 만나 효성의 스파넥스 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10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섬유 전시회인 ‘인터텍스타일 2017’을 직접 찾아 고객사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글로벌 경영을 강화해왔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동부대우전자 품은 대유위니아 韓 종합가전기업 3위로 ‘우뚛’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 예정  
‘대우’ 브랜드는 독립 계열사로 유지

김치냉장고 담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우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국내 3위 가전업체로 올라섰다.

대유위니아는 동부대우전자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80개국에 이르는 해외 영업망을 기반으로 사업구조 다변화와 함께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게 됐다.

11일 전자업계와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대우그룹은 지난 9일 23시경 동부대우전자 및 그 재무적투자자(FI)들과 동부대우전자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최종 인수 거래대상은 FI 중 한 곳인 한국증권금융(유진DEC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이 보유한 지분 15.2%를 제외한 동부대우전자 지분 84.8%다. 대우그룹은 이들 지분을 약 900억원에 매입하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격은 당초 알려진 1800억원보다 절반 가량으로 크게 낮아졌다. FI는 DB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할 당시 135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5년치 이자를 합한 FI 본전은 1900억원 정도였다.

우선협상자로 거론됐던 엔텍합의 경우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자금 조달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광주공장 인수, 직원 고용 보장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협상 결렬로 FI 측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매각을 성사해 손을 털고자 하는 입장이어서 대유는 크게 낮아진

조건으로 동부대우를 품에 안게 됐다.

대우그룹은 자본 인수와 동부대우전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중 약 1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이후에 동부대우전자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유 측은 동부대우 광주공장 인수, 직원 고용 보장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 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그룹은 2014년 대유위니아(구 위니아만도)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 동부대우전자까지 품에 안으며 국내 가전업계 3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대우전자로 출발한 동부대우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거쳐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에 안기며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5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전자업계는 이번 인수로 양사가 제품 라인업이나 영업망 등에서 서로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동부대우전자의 해외 영업망을 활용해 내수 중심에서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됐고 김치냉장고 ‘담채’와 에어컨이 중심인 제품 라인업을 세탁기, TV, 주방기기 등으로 확장해 종합 가전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동부대우전자도 현재 양관점에만 국한된 영업망을 대유위니아가 보유한 전국 200여개의 전문매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우그룹은 인수 후에도 ‘대우전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동부대우전자를 대유위니아와 독립된 계열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미 기자



행사 참가자들이 평창올림픽 플라자 내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차 파빌리온’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자동차

## 현대차, 46개국 152명 딜러와 미래전략 공유

‘2018 세계 우수 딜러대회’ 개최  
글로벌·지역별 우수 딜러 시상  
스키 점프 등 올림픽 경기 참관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우수 딜러들을 격려하고 브랜드 비전을 공유하는 ‘2018 세계 우수 딜러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5박 6일간 국내에서 진행된 딜러대회에는 46개국 79개 딜러에서 총 152명이 참가했다.

현대차는 딜러들과 글로벌 판매·상품·마케팅 전략 등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최우수 딜러와 지역별 우수 딜러 시상식을 했다.

현대차는 ‘현대차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에 맞춰 과거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하며 미래 50년의 모습을 제시했다.

올해는 딜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올림픽 플라자를 방문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딜러들은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차 파빌리온’을 관람하고 스노보드, 루지,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점프 등 실제 올림픽 경기를 참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현대차 딜러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평창올림픽 관람 일정을 담았다”며 “딜러들이 해외에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안전성·기능 모두 잡은 ‘무선주전자’

환경희생활과학

내열유리 투명해 직접 확인 가능  
환경호르몬 걱정없는 스테인레스

환경희생활과학은 안전성과 기능을 모두 만족한 티포트 무선주전자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희 티포트 무선주전자는 주요 제품인 컨트롤러를 영국 Strix사 제품으로 사용했다. Strix사의 컨트롤러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테스트를 통한 안정성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 컨트롤러다.

이 제품은 투명한 내열유리와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차를 우려낼 수 있으며 뛰어난 가열성능으로 약 1분 만에 물이 끓는 것을 유리 너머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2개의 뚜껑은 완전분리돼 위생적으로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

환경희 대표는 “티포트 무선주전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둔 제품으로 가족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객 삶



티포트 무선주전자. /환경희생활과학



대유위니아 광주 공장 외관 /대유위니아

의 질을 높이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